

봄꽃 시작으로 먹거리·자연·음악까지... 일상에 '행복'

김제시가 4월부터 6월까지 계절의 흐름에 맞춰 다채로운 축제를 선보이며 관광객과 시민들을 유혹한다.

화사한 봄꽃을 시작으로 먹거리, 자연, 음악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4색 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상춘객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이번 4색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꽃, 감자, 드넓은 보리밭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기대되는 봄축제를 알아보자.

#설렘 가득한 도심 속 감성 쉼터, '꽃빛드리축제' (4월 3~5일)

가장 먼저 봄의 문을 여는 '꽃빛드리축제'는 화사한 봄꽃과 빛, 감성이 어우러진 도심형 볼 축제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봄날의 놀이동산 '꽃빛랜드'라는 콘셉트로 꾸며진다.

낮엔 향형색의 봄꽃이 밤에는 빛을 품은 프로그램들이 공간을 채우고, 버스킹 공연과 시민 참여형 라이브 공연이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회전목마와 바이킹 에어바운스 등 키즈 어트랙션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3~5일 '꽃빛드리축제' 봄날의 놀이동산 컨셉 가족단위 관람객 위한 키즈 어트랙션도 마련

18~19일 '광활 햇감자 축제' 감자 수확 등 체험형 진행 감자요리도 맛볼 수 있어

내달 3~5일 '보리밭 축제'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 보리 먹거리 장터 마련

6월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장르별 공연·프로그램 준비

#직접 캐고 맛보는 봄의 하루, '광활 햇감자 축제' (4월 18~19일)

4월 중순에는 김제의 대표 농산물인 햇감자를 주제로 한 '자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가 열린다.

온 가족이 함께 넓은 들녘에서 감자 수확 체험을 즐기고 다양한 감자요리를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농촌 축제로, 방문객들은 농부의 땀방울과 김제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꽃빛드리축제



광활 햇감자 축제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

진봉면 보리밭 전경



직접 소통하며 지역 농업의 가치를 체감하는 등 온 가족이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올해는 사전접수를 통해 햇감자 가요제가 열려 축제의 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봄바람 따라 걷는 초록빛 위로, '진봉 새만금 보리밭 축제' (5월 3~5일)

계절이 무르익는 5월에는 드넓은 보리밭이 장관을 이루는 '진봉 새만금 보리밭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보리밭을 거닐며, 행사장 곳곳에 멋진 풍경과 함께 조성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과 보리를 활용한

지역 먹거리 장터가 마련되어 미식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낙조가 아름다운 망해사와 새만금까지 함께 둘러본다면 김제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초록 산자락에서 즐기는 선율,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6월 13~14일)

봄의 끝자락이자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상반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모악산의 푸른 자연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관람하며, 여유롭게 음악과 계절의 정취를 즐기고 친구, 연인과 함께 모아

산 인근 맛집과 카페를 방문해 축제의 여운을 나누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즐거움이 두배로 다가올 것이다.

오는 6월에는 풀벌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편안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뮤직페스티벌을 찾아 일상 속 원표 같은 시간, 4색 축제 여행을 마무리하기 추천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상반기를 장식할 4개 축제는 김제시가 매력적인 사계절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제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